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98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6.06.25~2026.07.01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1
▪ 경제·관광	2
▪ 지역·사회	2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8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11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민선(위성곤), 인수위, 평화(포럼), 항공(공항), 미래
경제·관광	관광객(외국인), 항공(노선), 소비(상권), 가격(할인), 채용(인력)
지역·사회	구조(해상), 장마, 예방(소방), 농약(판매), 환자(병원)

※ 분석 기간 : 26.06.25.~26.07.01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민선 (위성곤)	- 민선 9기 위성곤 도정 공식 출범 - 도정 주요 간부회의 유튜브 생중계 추진 - 민선 8기 폐막·공공기관장 인사 재편
	인수위	- '기후경제수도 제주' 100대 과제 전달 - 인수위 '재정 빨간불' 고강도 혁신 권고 - 취임 즉시 해결 생활민원 16선 공개
	평화 (포럼)	- 제21회 제주포럼 개최, 협력 해법 모색 - '세계평화의 섬 비전 2035' 선언 - 유엔 사무총장 후보 대담 등 세션 주목
	항공(공 항)	- 김포-제주 좌석난 국회 간담회 개최 - 항공노선 생활필수교통망 명시 입법 추진 - 제주항~공항 수소트램 법정계획 승인
	미래	- '가장 먼저 미래 만나는 섬' 비전 제시 - 40MW급 AI 데이터센터 등 대전환 추진 - AI·로봇·우주 미래인재 양성 본격화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관광객(외국인)	- 외국인 20% 할인 제주관광 쇼핑 페스타 - 4개국 대사관과 안심관광 협약 체결 - 국제선 외국인 승객 증가, 직항이 관건
	항공(노선)	- 제주~인천 정기편 10월까지 연장 운항 - 김포~제주 마일리지 특별기 운영 - 항공료 상승·좌석 감소 관광 빨간불
	소비(상권)	- 고유가 지원금 상권 효과 전국 최저 - 생산·소비 동반 감소, 경제 부진 지속 - 골목상권 활성화·상권 벨트화 추진
	가격(할인)	- 월동채소 도매가격 전년 대비 하락 - 휘발유값 80여 일 만에 1900원대 진입 - 착한가격업소 '탐나는 점빵' 98곳 선정
	채용(인력)	- 중소기업 51% '하반기 채용 계획 없다' - 전세버스 1850명 고용안정 패키지 지원 - 관광업계 인력난 대응 디지털 전환 지원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구조(해상)	- 우도 해상 어선 충돌·전복, 선장 구조 - 해상 물놀이·낚시 안전사고 잇따라 - 가파도 야간 응급환자 해상 긴급 이송
	장마	- 역대 세 번째 늦은 '지각 장마' 시작 - 장마 첫날 한라산 200mm 넘는 폭우 - 재난 대응체계 가동, 위험지 772곳 예찰
	예방(소방)	- 여름 휴가철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 추진 - 심정지 회복률 16.5% 전국 1위 기록 - 소방 간부 인사·일선 활약 잇따라
	농약(판매)	- 무등록 농약 4000만 원어치 유통 송치 - 농특산물 직거래 '탐나는장터' 오픈 - 유통 식품 방사능 검사 모두 '안전'
	환자(병원)	- 제주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1등급 -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 피부과 패소 - 준보훈병원 지정 등 의료 사각 해소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6년 6월 25일~7월 1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731건임
 - 정치·행정 분야 318건, 경제·관광 121건, 지역·사회 292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민선(위성곤), 인수위, 평화(포럼), 항공(공항), 미래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민선 (위성곤)	- 민선 9기 위성곤 도정 공식 출범 · 위성곤 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7월 1일 도청 탐라홀에서 전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열고 4년 임기를 시작함. 취임 선서와 취임사 후 기념 촬영으로 행사를 간소하게 마무리한 뒤 창열사와 국립제주호국원을 참배하고, 취임 첫날부터 민생 현장을 찾아 도민과 소통하는 일정을 진행함. · 민선 9기 첫 인사로 초대 비서실장에 임찬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58)을 발탁함. 임 실장은 대기고(1회)와 인하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더불어민주당 전략
-------	-------------	---

정치·행정	민선 (위성곤)	기획국장을 역임했으며, 문재인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지낸 인사로 더불어민주당과 국회를 잇는 '가교 역할'이 기대됨. - 도정 주요 간부회의 유튜브 생중계 추진 · 제주도가 위성곤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청에서 열리는 주요 간부회의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7월 2일 간부회의를 처음 생중계함. 간부회의는 도정 현안을 논의하고 방향을 정하는 자리이지만 그간 도민이 직접 들여다볼 통로가 없었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도정 공개 조치로 평가됨. · 생중계가 시작되면 도민은 정책이 다듬어지는 과정과 논의의 맥락까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함. 위 지사는 '도민 알 권리 보장으로 행정 신뢰 출발'을 강조했으며, 주요 회의의 실시간 공개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 참여와 행정 신뢰를 함께 구축하는 열린 도정 구현이 기대됨. - 민선 8기 폐막·공공기관장 인사 재편 ·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6월 30일 퇴임식을 갖고 1461일간의 민선 8기 도정을 마무리함. 제주도는 5년생 팽나무 퇴임 기념 식수와 사무 인계·인수식, 공식 퇴임식을 진행했으며, 오 지사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새로 내겠다는 도전 정신으로 전 부서가 혁신에 동참했다'고 소회를 밝히고 미래를 위한 도전과 혁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함. · 민선 9기 위성곤 도정 출범과 맞물려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 인사 재편이 본격화됨. 제주테크노파크(JTP)·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이 임기를 남기고 물러나면서 개발공사·여가연 등 기관장 공석이 확대됐고, 비상임이사 교체 등 이사회 구성에도 변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돼 후속 인선 방향이 주목됨.
	인수위	- '기후경제수도 제주' 100대 과제 전달 · 제40대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6월 30일 전달식을 열어 김일환 인수위원장인 위성곤 당선인에게 '민선 9기 도정 100대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함. 인수위는 미래 비전으로 '먼저 만나는 미래, 기후경제수도 제주'를 정하고 7대 도정 목표 아래 100대 정책과제를 최종 확정함. · 100대 과제에는 제주민생회복 3·3·3 추경안 편성 등이 포함됐으며, 위 당선인은 '도민의 삶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정책을 담았다'고 밝힘. 6월 9일 출범해 활동해온 인수위의 성과물이 7월 1일 취임식과 함께 본격 가동되는 민선 9기 도정 운영의 기본 설계도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인수위 '재정 빨간불' 고강도 혁신 권고 · 인수위가 6월 28일 '민선 9기 100대 과제 점검회의'에서 '빚잔치'라는 표현까지 쓰며 제주도 재정 상황을 위험 수준으로 진단함. 지난해 실질채무는 2조5340억 원으로 연말까지 3000억 원가량 더 늘어날 전망이며, 이대로면 매년 5000억 원을 갚아야 한다는 분석이 제시됨. · 인수위는 과도한 지방채 발행, 비합리적 예산 편성·집행 등 '3대 재정운용 불합리 사례'를 원인으로 지적하며 가칭 '재정 건전화 5대 정책 과제'를 선정해 위 당선인에게 권고함. 2027년 모든 사업 예산의 원점 재검토 방침에 따라 민선 9기 도정에서 고강도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으로 전망됨. - 취임 즉시 해결 생활민원 16선 공개

정치·행정	인수위	· 인수위가 6월 12일부터 도민 소통 플랫폼 '모두의 제주'를 가동해 불편 제보 136건, 정책 제안 264건, 인재 추천 217건을 접수하고 이 가운데 실현 가능성과 즉시 체감도가 높은 생활민원 16건을 1차 선정해 공개함. 도민 피부에 와닿는 일을 우선 챙기겠다는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 선정 민원은 새벽·심야 항공기 운항시간에 맞춘 공항 경유 버스 배차, 읍면 지역 등 심야주유소 연장 운영 지원 등 교통 분야가 다수를 차지함. 일자리·교통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최우선 해결 민원 16건을 취임 즉시 처리해 새 도정에 대한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됨.
	평화(포럼)	- 제21회 제주포럼 개최, 협력 해법 모색 · '분열의 시대, 협력의 재구상'을 주제로 한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6월 25일 제주해비치호텔에서 개최함. 외교부와 제주도가 처음 공동 개최했으며 85개국 6000명이 참여하는 성황 속에 총 68개 세션에서 AI 거버넌스·공급망·다자주의·중견국 역할 등 국제 현안이 폭넓게 논의됨. · 이재명 대통령은 개최식 영상 축사를 통해 제주포럼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협력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평화를 더 적극적으로 말해야 한다'고 강조함. 외교부·제주도·국제평화재단·동아시아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해 분열된 국제질서 속 협력의 해법을 모색함. - '세계평화의 섬 비전 2035' 선언 · 제21회 제주포럼이 6월 26일 제주해비치호텔 폐회식에서 향후 10년간 제주가 나아갈 평화 비전을 담은 '제주 세계평화의 섬 비전 2035'를 공식 선언하며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함. 2035년 제주가 평화와 인권, 생태와 번영, 기술과 인간, 지역과 세계가 함께하는 새로운 평화공동체가 될 것임을 천명함. · 국제사회의 분열과 복합 위기 속에서 평화협력의 새 방향을 모색한 이번 포럼은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들이 참석하고 외교부가 공동 주최하면서 대한민국 대표 평화 플랫폼으로서 위상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10년 제주 평화정책의 청사진이 마련된 것으로 의미가 부여됨. - 유엔 사무총장 후보 대담 등 세션 주목 · 포럼 기간 '유엔 사무총장 후보자 대담: 다자주의 재구상' 세션에서 차기 UN 사무총장 후보들이 '유엔의 존재감과 유능함 입증'을 과제로 꼽고 민간 협력·소통·개혁·신뢰 회복 등의 가치를 제안함. 위성곤 당선인은 개최식과 세계지도자세션 등에 참석해 공약인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를 알리는 유치전을 전개함. · 제주도의회의는 '제주형 남북교류 협력의 새로운 도약의 과제' 세션에서 한라봉 묘목의 북한 도착 등 성과를 진단했고, 생태법인 글로벌 네트워크 세션에서는 자연과 동식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가 논의됨. 포럼을 계기로 제주도와 4개국 주한 대사관 간 안심 관광 업무협약도 체결되는 성과가 도출됨.

정치·행정	항공(공항)	- 김포-제주 좌석난 국회 간담회 개최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한규·문대림·김성범 의원이 6월 29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대한항공·제주항공 등 항공업계 관계자들과 '김포-제주 항공 좌석 부족 사태 관련 간담회'를 개최함. 정부가 감편 최소화를 권고하고 7월부터 노선을 증편하도록 추진하기로 함. · 김한규 의원이 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운항계획 분석 결과 5월 기준 티웨이(트리니티)항공의 이행률이 86.1%에 그치는 등 감편이 특정 항공사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됨. 민주당은 김포-제주 항공편이 도민에게 사실상 대중교통과 같은 필수 교통수단이며 좌석난이 관광객 감소와 소비 침체 등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시급한 해결을 강조함. - 항공노선 생활필수교통망 명시 입법 추진 ·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6월 26일 제주와 육지를 연결하는 국내선 항공노선을 도민의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명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함. 국내선 항공노선을 도로·철도처럼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첫 시도로 주목됨.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민 항공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책과 재정 지원을 추진하도록 규정함. 항공과 해상이 육지를 오가는 유일한 이동 수단인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도민의 항공 이동권을 국가가 책임지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안정적인 항공 서비스 확보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 제주항~공항 수소트램 법정계획 승인 · 국토교통부가 6월 26일 제주도가 지난해 신청한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도시철도법에 따라 승인·고시함. 제주 첫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으로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제주항과 제주공항을 연결하는 수소트램(노면전차) 도입 기본계획이 정부 법정계획에 처음 반영됨. · 사업은 2035년까지 5302억 원을 투입하는 규모로 계획됨.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2022년부터 사전 타당성 검토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통해 추진해온 청정트램 도입 사업이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면서 제주항~제주공항 연결 신교통수단 도입이 본격 추진 동력을 얻은 것으로 평가됨.
	미래	- '가장 먼저 미래 만나는 섬' 비전 제시 · 위성곤 지사가 취임사를 통해 제주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미래를 만나는 섬으로 만들겠다는 포부와 함께 '기후경제수도 제주' 청사진을 제시함. 제2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 마련과 재생에너지·AI 산업 육성, 책임 행정 실현 등을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강조함.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축하 메시지에서 제주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이끄는 거점으로 힘차게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위 지사는 선거 과정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내세운 '민생 안정'을 토대로 재정 건전성을 다지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실용 행정에 초점을 맞춰 도정을 운영할 것으로 전망됨.

정치·행정	미래	- 40MW급 AI 데이터센터 등 대전환 추진 ·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21회 제주포럼에서 AI 디지털 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고 제주에 40MW급 AI 데이터센터 설치를 추진함. 행정·산업·교육·민간 등 전 분야의 AI 수요를 수용하는 AX 대전환을 목표로 4대 과학기술원 제주연합캠퍼스를 마중물로 삼는 구상임. · JDC는 6월 29일 본사에서 임직원과 오피니언리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시작, NEW JDC'를 슬로건으로 신 경영 방침을 선포함. 송석언 이사장은 사업 정상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 의지를 밝히며 새 경영 목표 아래 조직 운영 방향을 재정비하는 행보를 본격화함. - AI·로봇·우주 미래인재 양성 본격화 · 제주도가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6억 원을 투입해 '초·중·고 미래신산업 인재양성 사업'을 운영함. 방학 기간에는 인공지능·로봇·우주·드론 등 미래 신산업 분야 교육이 이뤄지며, 'AI 인재양성 프로그램'과 'AI 로봇 인재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미래 산업을 이끌 인재 육성을 본격화함. · 우주항공청 소속 우주환경센터는 6월 30일 제주 소재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와 '미래 우주항공 분야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함. 제주에 위치한 두 기관이 교육협력 체계를 구축해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우주환경 교육을 실시하는 등 미래 우주항공 분야 전문인재 양성을 추진할 예정임.
-------	----	--

○ 경제·관광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관광객(외국인), 항공(노선), 소비(상권), 가격(할인), 채용(인력) 등으로 나타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경제·관광	관광객 (외국인)	- 외국인 20% 할인 제주관광 쇼핑 페스타 ·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가 7월과 8월 두 달간 제주 전역에서 '2026 제주관광 쇼핑 페스타'를 진행함.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Zero Pay)와 알리페이 플러스(AliPay+)를 기반으로 도내 약 3만2000여 개 제로페이 가맹점이 참여하는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로 운영됨. · 행사 기간 외국인 관광객은 알리페이 플러스 등 해외 모바일 결제 서비스로 결제 시 쇼핑과 음식점, 전통시장 등에서 20% 할인 혜택을 제공받음. 외국인 관광객의 모바일 간편결제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관광 소비 확대를 상권 활성화로 연결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기대됨. - 4개국 대사관과 안심관광 협약 체결 · 제주도가 6월 25일 제주해비치호텔에서 파키스탄·르완다·동티모르·우즈베키스탄 4개국 주한 대사관과 '글로벌 관광객 친화 도시 달성을 위한 안심 안전 제주 관광 체계 구축 및 홍보 업무협약'을 체결함.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을 계기로 성사된 협약으로 평가됨. · 협약에 따라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자국 대사관의 안내를 받으며 더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안심·안전 체계가 구축됨.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제주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홍보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관광객 친화 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국제선 외국인 승객 증가, 직항이 관건 · 제주항공이 올해 1~5월 국제선 탑승객을 분석한 결과 전체 358만9000여 명 가운데 외국인 승객이 105만8000명으로 집계됨. 국제선 외국인 승객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제주 기점 국제노선에서도 외국인 탑승 비중이 높게 나타나 제주 인바운드 관광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짐. · 특히 제주-베이징 노선은 외국인 비중이 97%에 달해 중화권 수요의 제주 유입세가 확인됨. 높은 외국인 탑승 비중을 실제 관광객 증가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중화권 수요를 겨냥한 제주 직항 노선의 확대와 회복이 관건으로 지목되며, 직항 확충이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의 핵심 과제로 부상함.
	항공 (노선)	- 제주~인천 정기편 10월까지 연장 운항 · 국토교통부가 6월 26일 제주항공(대표이사 김이배)이 신청한 제주-인천 국내선 정기편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함. 당초 5월 12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3개월간 주 2회(월·금요일) 일정으로 운항할 계획이었으나 하계 운항 시즌이 끝나는 10월 24일까지 연장 운항이 확정됨. · 취항 후 현재까지 4300여 명이 탑승해 평균 탑승률 88.5%를 기록했으며 지난 5월 탑승률은 89%로 꾸준한 수요가 확인됨. 탑승객 10명 중 3명(약 30.6%)이 외국인으로 나타나 도민의 수도권 이동 수요와 외국인 방문 수요를 함께 흡수하는 노선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됨. - 김포~제주 마일리지 특별기 운영 · 대한항공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27일부터 8월 6일까지 김포~제주 노선에 마일리지 특별기를 운영함. 해당 기간 중 8월 2일을 제외하고 매일 2편씩 총

경제·관광	항공 (노선)	20편이 운항되며, 마일리지 우선 발권이 가능하도록 편성돼 고객의 마일리지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둬. - 투입 기종은 일반석 140석 규모의 에어버스 A220-300임. 증가하는 여름철 여행 수요에 대응하고 마일리지 사용 편의성을 높여 고객에게 보다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계획으로, 좌석난 우려가 제기되는 휴가철 성수기 김포~제주 노선의 좌석 공급을 보완하는 효과도 기대됨. - 항공료 상승·좌석 감소 관광 빨간불 6월 한 달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110만9600명(잠정)으로 집계되는 등 내국인 관광객 감소세가 갈수록 커짐.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르고, 고유가 부담으로 일부 저비용 항공사가 운항을 취소하면서 국내선 공급 좌석이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분석됨. - 좌석난 해소를 위해 6월 29일 국회에서 정부·항공업계 간담회가 열려 감편 최소화 권고와 함께 7월부터 노선 증편이 추진됨. 김포-제주 항공편이 도민의 필수 교통수단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항공 좌석 공급 정상화 여부가 하계 성수기 제주 관광 회복과 지역경제 반등의 변수로 부상함.
	소비(상권)	- 고유가 지원금 상권 효과 전국 최저 - 중소벤처기업부가 6월 29일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영향 분석 결과'에서 전국 골목상권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10.6% 증가한 반면 제주지역 매출 증가율은 5.2%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로는 부산이 16%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이번 분석은 전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2차 지급이 시작된 이후 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매출 데이터를 토대로 이뤄짐. 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전국에서 제주가 가장 낮게 나타나면서 지역 소비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 필요성이 부상함. - 생산·소비 동반 감소, 경제 부진 지속 - 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가 6월 30일 발표한 '2026년 5월 제주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5월 제주지역 광공업 생산지수는 97.9(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8.2% 감소함. 제주지역 광공업 생산지수는 지난 4월부터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생산 부진이 깊어지는 양상임. -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면서 생산과 소비 관련 주요 지표가 나란히 동반 하락함. 광공업 생산과 대형소매점 판매가 함께 줄어드는 흐름 속에 제주 경제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 심리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됨. - 골목상권 활성화·상권 벨트화 추진 - 서귀포시가 '중앙동 문화골목'을 9번째, '올레별빛거리 상점가'를 10번째 골목형 상점가로 잇따라 신규 지정함. 중앙동 문화골목 상인회는 '추억의 골목길' 등 세 가지 핵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침체된 상권 분위기를 되살리고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제주도는 6월 30일 '가보고 싶은 골목상권 만들기 민관협의체' 2차 회의를 열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선정 상권을 묶는 벨트화 방안을 모색함. 서귀포시는 11월 7일까지 문화·관광·체육 이벤트와 연계한 '모바일 스탬프-상권 자율 할인 이벤트'를 진행해 상가별 5~10% 할인을 제공함.

경제·관광	가격 (할인)	- 월동채소 도매가격 전년 대비 하락 · 제주도 농업기술원 농업디지털센터가 2025~2026년산 도내 주요 월동채소 작황 관측 조사 결과를 발표함. 품목별 작황 차이는 있었으나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생산량 증가와 소비 부진 등의 영향으로 월동무·당근 등 주요 월동채소의 도매시장 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 · 6월 25일 공개된 이번 관측은 월동채소의 생육부터 생산, 유통까지 전 과정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 데이터 분석으로 진행됨. 올해산 재배면적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과잉 생산에 따른 도매시장 가격 하락세가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됨. - 휘발유값 80여 일 만에 1900원대 진입 ·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 기준 6월 29일 오후 1시 제주지역 주유소의 리터당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전날보다 18원 떨어진 1997원으로 집계됨. 중동사태로 지난 4월 2000원대로 올라선 제주 휘발유 가격이 80여 일 만에 1900원대로 하락했으며, 89일 만에 1800원대 판매 주유소도 등장함. · 이날 오전 9시 기준 평균가가 전날보다 12원 내린 2003원을 기록한 뒤 오후 들어 1997원까지 떨어지는 등 하락세가 이어짐. 다만 제주 휘발유값은 여전히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비싸고 전국 평균 1971원보다 26원가량 높은 수준 이어서 고유가 부담 완화와 하락세 지속 여부가 주목됨. - 착한가격업소 '탐나는 점빵' 98곳 선정 · 고물가 속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을 지키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식점 등 개인서비스업소 98곳이 제주도 착한가격업소 '탐나는 점빵'에 새로 선정됨. 이로써 도내 착한가격업소는 7월 1일 기준 437곳으로 늘어나며 가격 안정에 동참하는 업소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 제주도가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모집한 결과 130개 업소가 신청했고 이 가운데 98곳이 선정됨. 선정 업소에는 공공요금·상수도요금 감면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고물가 시기 도민과 관광객의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가격업소 확산으로 생활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됨.
	채용 (인력)	- 중소기업 51% '하반기 채용 계획 없다' ·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제주중소기업회장 성상훈)가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중소기업 1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인력 채용 현황조사' 결과 51.0%가 하반기 인력 채용 계획이 없다고 응답함. 지역 취업시장에 강한 한파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 채용 계획이 '미정 또는 유동적'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으며, 채용을 꺼리는 원인으로는 인건비 부담 증가와 경영 악화 등이 꼽힘. 채용장려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6.7%에 달해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의 채용 여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 - 전세버스 1850명 고용안정 패키지 지원 · 제주도가 단체관광 감소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전세버스업계를 위해 '제주 전세버스업 고용안정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자를 7월 8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함.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정상 영업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소속 운수·사무직 종사자 1850명임.

경제·관광	채용 (인력)	·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인 '버팀이음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돼 추진됨. 전세버스업의 고용위기를 덜고 숙련 운수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한 것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 종사자의 고용 유지와 지역 관광 수송 기반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관광업계 인력난 대응 디지털 전환 지원 · 제주도관광협회가 7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제주 관광사업체 디지털 전환 및 경쟁력 강화 사업' 참여업체를 추가 모집함. 제주지역 관광사업체의 키오스크·서빙로봇 등 디지털 장비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광업계의 인력난과 운영비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됨. · 참여 업체에는 키오스크·서빙로봇 등 디지털 장비 구매비의 50%를 보조하며 업체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함.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관광사업체의 운영 부담을 덜고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관광업계의 인력난 완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됨.
-------	------------	--

○ 지역·사회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구조(해상), 장마, 예방(소방), 농약(판매), 환자(병원) 등으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지역·사회	구조(해상)	- 우도 해상 어선 충돌·전복, 선장 구조 · 6월 25일 오후 4시 38분쯤 제주 우도 검멀레해안 동쪽 약 0.9km 해상에서 애월 선적 연안복합어선 A호(1.56t·승선원 1명)와 인근에서 운항 중이던 구좌 선적 연안복합어선 B호(9.7t)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됨. 이 사고로 두 어선 중 소형인 A호가 전복되는 피해가 발생함. · 신고를 받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 2척과 연안구조정, 해양특수구조대 등을 현장에 급파해 구조 작업을 벌임. '나 홀로 조업'을 하다 사고 후 고립돼 있던 A호 선장 1명이 무사히 구조됐으며, 어선 전복에도 인명 피해 없이 상황이 마무리되면서 해경의 신속한 초동 대응이 확인됨. - 해상 물놀이·낙시 안전사고 잇따라 · 6월 28일 오후 1시 37분쯤 서귀포시 보목동 구두미포구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 없이 스노클링을 하던 20대 관광객 4명이 조류에 떠밀려 물에서 약 100m 떨어진 갯바위에 고립됨. '수영하던 4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해경이 육상순찰팀과 연안구조정을 투입해 전원을 무사히 구조함. · 6월 26일 낮 12시쯤에는 서귀포시 강정동 서건도 인근 갯바위에서 홀로 낙시하던 70대 남성이 파도에 휩쓸려 해상으로 추락해 숨짐. 여름철 수난사고 주의보에도 안전장비 미착용 물놀이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과 함께, 도내 연안해역 익수사고·사망자 급증에 따른 안전의식 제고가 요구됨. - 가파도 야간 응급환자 해상 긴급 이송 · 6월 24일 오후 11시 28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에서 50대 남성이 심한 복통과 구토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됨. 119를 거쳐 신고를 접수한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화순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즉시 급파했으며, 야간 시간대 도서 지역 응급상황에 해경과 소방당국이 공동 대응에 나섬. · 해경은 자정을 조금 넘긴 시점 환자와 보호자 2명을 연안구조정에 태워 신고 접수 40여 분 만에 긴급 이송을 완료함. 병원 접근이 어려운 가파도 등 부속 도서 주민의 야간 응급의료 공백을 해상 이송으로 메우는 해양경찰의 신속하고 즉각적인 출동·대응 역량이 다시 한번 확인됨.
	장마	- 역대 세 번째 늦은 '지각 장마' 시작 ·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제주 장마가 평년(6월 19일)보다 11일 늦은 6월 30일 공식 시작됨. 1973년 전국 기상관측망 확충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늦은 장마로 기록됐으며,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정체전선이 제주도 남쪽 해상까지 북상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 7월 2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10~100mm, 산지는 180mm 이상이며 시간당 30mm의 강한 비와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강수가 예보됨. 7월 3~5일까지도 비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침수·산사태 등 장마 초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요구됨. - 장마 첫날 한라산 200mm 넘는 폭우 · 장마철에 접어든 첫날부터 한라산에 진달래발 245.5mm, 남벽 233.5mm, 영실 197.5mm, 윗세오름 183.5mm 등 최고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짐. 지점별

	장마	일강수량도 성산 103.1mm, 서귀포 92.9mm, 고산 69.4mm, 제주 38.1mm로 집계되는 등 도 전역에 많은 비가 내림. · 강풍에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막고 가로수가 전도되는 등 피해가 잇따름. 7월 1일 늦은 밤까지 최고 8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으며, 짧은 시간 특정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최근 장마 양상을 고려할 때 산간과 저지대 침수 등 추가 피해에 대한 경계가 요구됨. – 재난 대응체계 가동, 위험지 772곳 예찰 · 제주도가 집중호우와 강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가동함. 재해 위험지역 772곳에 대한 예찰과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했으며, 위성곤 지사는 취임 직후 자연재난 대처회의를 직접 주재해 도민 안전 최우선 원칙 아래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 대응할 것을 주문함. · 서귀포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재해 예방과 안전한 산림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산림청 소관 국유림 사업장 현장점검과 임도시설 정비를 추진함. 아울러 폭염·집중호우로 인한 가축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장마철 방역 관리도 강화함.
지역·사회	예방 (소방)	– 여름 휴가철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 추진 · 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박진수)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2026년 여름 휴가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대책'을 7월 한 달간 추진함. 인파가 몰리는 숙박 시설과 실내 휴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등을 점검해 대형 화재와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둬. · 최근 5년간(2021~2025년) 여름철(6~8월) 도내에서 모두 647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남. 휴가철 인파가 집중되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인 예방 활동이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됨. – 심정지 회복률 16.5% 전국 1위 기록 ·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급성심장정지조사' 결과 제주의 병원 도착 전 자발순환 회복률이 16.5%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전국 평균과 도 단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10년 사이 3배 향상되며 전국 최상위권 응급대응 역량이 입증됨. · 일반인 심폐소생술(CPR) 시행률도 2021년 17.7%에서 2025년 35.7%로 두 배 증가함. 최근에는 부모와 형제자매, 자녀 등 15명 대가족 관광객이 제주 여행 첫 일정으로 관광지 대신 소방교육대를 찾아 심폐소생술·응급처치 교육을 받는 등 응급처치에 대한 관심 확산이 확인됨. – 소방 간부 인사·일선 활약 잇따라 · 제주도 소방안전본부가 7월 1일자로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11명(소방정 5명·소방령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함. 제주소방서장에 고정훈 소방정책과장, 119특수대응단장에 고영훈 119종합상황실장, 소방정책과장에 양윤석 구조구급과장이 각각 임명되는 등 소방 지휘부가 재편됨. ·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서는 6월 27일 오전 0시 40분쯤 음식점에서 치솟는 화염을 발견한 주민의 연락을 받은 의용소방대원들이 한밤중 화재를 진압해 피해를 줄임. 119특수대응단 양우석 소방장은 초기 화재진압과 인명검색 등 헌신적 활동을 인정받아 제31회 KBS119상 본상 수상자로 선정됨.

지역·사회	농약 (판매)	- 무등록 농약 4000만 원어치 유통 송치 ·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농약판매업 등록 없이 제초제를 판매한 A씨(63)와 B씨(74)를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귀포시 지역에서 4076만 원 상당의 무등록 농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음. · 이들이 1년 넘게 유통한 무등록 제초제는 7300여 병에 달함. 등록된 농약판매업소를 거치지 않고 시중가의 절반 수준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는 무등록 상태의 농약 판매를, B씨는 농약 공급과 판매 실적 관리를 맡는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됨. - 농특산물 직거래 '탐나는장터' 오픈 · 제주시가 농가와 농식품 업체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제주여행공공플랫폼 내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플랫폼 '탐나는장터'를 7월 10일 공식 오픈함. GAP·친환경 인증 농산물과 6차 산업 인증 제품 등을 한곳에 모아 소비자가 산지 농특산물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구성됨. · 예산 소진 시까지 판매 상품을 최대 40% 할인하는 기획전도 운영됨. 생산자에게는 새로운 판매 기회를, 소비자에게는 제주 농특산물의 합리적 구매 기회를 제공하는 온라인 직거래 방식으로, 지역 농산물 유통 활성화와 농가·농식품 업체의 온라인 판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유통 식품 방사능 검사 모두 '안전' ·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오순미)이 올해 상반기 제주에서 유통된 식품들이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모두 통과했다고 7월 1일 발표함.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방사능 불안을 미리 덜기 위해 진행된 검사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식품 제조·판매업체 유통 식품과 학교급식 식재료가 대상임. · 품목별로는 배추 등 농산물 50건과 갈치 등 수산물을 포함해 검사가 진행됐으며 검사 대상 전 품목이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모두 통과한 것으로 확인됨. 학교급식 식재료까지 검사 범위에 포함해 도민과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방사능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사전에 해소하는 효과가 기대됨.
	환자 (병원)	- 제주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1등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6월 30일 발표한 제4차(2025년)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 제주대학교병원이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함. 4회 연속 1등급으로, 사실상 제주에서 유일한 신생아중환자실(NICU)인 제주대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센터가 전국 최상위 의료시설로 인증받음. · 제주대병원은 간호 인력 개선율에서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제주지역 신생아중환자실 인력 여건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전국 최고 수준의 신생아 집중치료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면서 도내 유일 신생아 집중치료 기관으로서 신생아 진료 안전망에 대한 도민 신뢰 제고가 기대됨. -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 피부과 패소 · 제주지역 한 피부과 의원이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환자 유치 브로커인 중국인을 통해 외국인 환자 17명을 소개받고 수수료 1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음. 해당 의원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지역·사회	환자 (병원)	· 법원은 대표원장으로서 외국인 환자 유치 과정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장의 책임을 인정하고 등록취소 처분을 유지함. 미등록 불법 브로커를 통한 외국인 상대 '환자 장사'에 대해 의료기관 대표의 관리 책임을 묻은 판결로, 불법 환자 유치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평가됨. - 준보훈병원 지정 등 의료 사각 해소 · 국가보훈부가 보훈병원이 없는 제주권역에 대한 준보훈병원 지정 공모를 7월 15일까지 진행하며 지정 절차에 착수함.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보훈의료 접근성에 제약을 받아온 1만여 명의 제주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각지대 해소의 첫걸음으로 평가됨. · 국제로타리3662지구 제주서부로타리클럽(회장 이홍연)은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제주도뇌전증환우협회와 함께 '제주지역 뇌전증 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진행함. 2026년 6월부터 2028년 6월까지 최대 2년간 도내에서 치료받는 뇌전증 환자 총 25명의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임.
-------	------------	--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